



따끈따끈한 문화예술정보로 추위를 한방에!

글_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etnews.co.kr

독서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다. 날씨는 매섭게 차갑지만 마음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추위로 쫓겨난 몸과 마음을 18세기 화가들의 정열적인 그림으로 녹여보자. 특히 다가오는 아이들의 겨울 방학을 맞아 인터넷 문화예술탐방을 거친 후 실제 문화공간을 찾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운 집 밖으로 나가기 전 꼭 둘러봐야 하는 사이트가 바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culture-arts.go.kr>)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국립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예술의 전당 등 주요 문화예술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자료 약 32만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곳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 문화기반시설 28개 기관의 약 68만8천 건의 DB를 연계했고,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총 35개 기관, 단체의 문화예술정보 약 100만 건에 대한 종합 검색 서비스가 가능하다.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가치정보와

기반정보로 구분해 DB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각 문화예술 분야를 섹션별로 구성해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각 분야별로 예술가와의 인터뷰 및 현장 촬영 등의 과정을 거친 동영상으로 사용자 위주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강하다. 문화예술아카데미는 문화예술교육의 정보화를 위해 놀이, 감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창조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는 예술과 지식, 공연, 전시, 문예특화서비스, 통합검색 등으로 구성됐다. 예술과 지식 코너에서는 연극과 음악, 무용, 건축, 영상, 미술, 문학, 문화 공간 및 행사, 문화정책 등 전통 및 근 현대 주요 작품 등이 소개된다. 또 전통 연희 및 연극 예술가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동영상을 제공한다. 전문가를 위한 정보로 예술 단체와 극단 정보도 볼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전자음악과 미래 음악 이야기 등 기존 문화와 기술의 접목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VOD극장에서는 연극과 음악, 건축, 영화 등과 관련된 VOD를 볼 수 있다. 인기 VOD란을 통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VOD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물론 최신 VOD에 대한 정보

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내용이 돋보인다. 공연전시 코너에서는 분야별 최신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공연전시 후기 소개란에서 미리 공연의 내용과 감동을 확인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예술배움터를 클릭하면 바로 문화예술아카데미로 연결된다.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창조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곳에는 문화예술 교실이 있고 강좌를 신청하면 마치 놀이를 즐기듯 문화를 습득하게 해준다.

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는 전국에 흩어진 공연장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주에 하는 새로운 공연이 무엇인지, 이달에는 어떤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 모르는 단어나 정보가 있으면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검색에 따르면 개념미술이란 작품의 일반적인 물질적 측면보다 관념성의 비물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의 미술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호나 문자 등의 물질에 의한 표현양식을 의미하고, 넓게는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미술과 같이 드로잉미술이나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미술형태를 포괄한다. **ST**



글쓰는 송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자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